

강론 ...

## 착한 목자



이원철 신부  
(교구청 성소국장)

이제, 우리 모두는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착한 목자로 살아가도록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루카 2,19)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셨던 하느님께서서는 구원의 시대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이제부터 모든 인간은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입니다”(요한 10,11). 이 착한 목자는 성부께서 맡겨 주신 양들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소중히 아끼고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처럼 착한 목자는 오직 양들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 죽어 갑니다.

이제 착한 목자는 당신을 대리할 목자들을 뽑아 오늘의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보내시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이 정신을 그들이 물려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목자들 또한 그분이 가지셨던 그 사랑으로써 양들을 보살피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착한 목자로서의 삶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착한 목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 고자 선택한 이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바치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목숨을 바친 착한 목자는 그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자들은 바로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 하지만 사제직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43차 성소주일입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사제성소와 봉헌생활 성소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곳에 ‘성소의 꽃이 만발’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착한 목자로 살아가도록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루카 2,19)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마음을 다 바쳐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요시아처럼 아훼께로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열왕하 23,25)

사람의 마음 속에 열정과 힘이 있다. 부족하기는 해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완전함이란 마음의 오롯함이지 외적인 완전함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데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힘이 든다 하지만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킬 마음이 부족해서이다. 마음만 있으면 충심을 다할 수 있고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

오랫만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인물이 나타났다. 선왕들의 정신적 퇴폐와 우상숭배를 말끔히 씻어버릴 왕이 나타났다. 시들은 잎새처럼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느님께 되돌린 자가 바로 유다 왕 요시아였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마련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앙의 계승에 있어서는 요시아가 그랬다. 그의 종교적 열성과 충실함은 대단하였다. 그가 걸은 길은 부왕이 걸은 길과는 전혀 달랐다. 요시아는 하늘에서 온 사람처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다시 세웠다.

요시아는 성전 정화는 물론이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

를 읽고 그 법전을 온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리고 계명과 훈령을 지키기로 자신이 먼저 하느님 앞에 서약하였다. 백성들도 왕을 따라 서약하였다. 요시아는 법전에 따라 모든 것을 새로이 하였다. 우상의 철페는 물론 그를 섬기던 사제들도 파면하고 죄악의 흔적까지도 쓸어버렸다. 우상숭배의 원조가 되었던 여로보암의 제단도 찾아내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백성들이 법전에 따라 과월절 축제를 지키게 함으로써 개혁을 완수하였다.

왕국의 병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겼다.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다. 그가 세운 공로와 정신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을 섬김이 무엇인지 행실로서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섬김에 상황만을 논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입당송** 시편 33(32), 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땅에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 졌도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4,8-12

**화답송** 시편 118(117), 1과 8-9,21-23, 26과 28-29 (◎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제2독서** 요한 3,1-2

**복음 환호송** 요한 10,4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0,11-18

**영성체송**

주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돌아가신 착하신 목자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 고교생들의 찬반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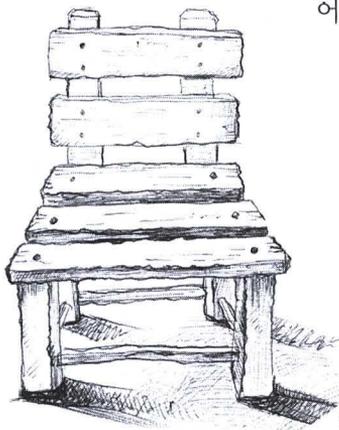
이미 사형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문제를 놓고 논술수업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인데 한 학급 인원수 30~35명씩 8학급인 그들 가운데 학급당 20명정도씩이 사형에 반대했고 나머지 수가 사형에 찬성했다. 교사인 나는 여러가지 자료만 제공했고 그 어느쪽으로도 유도하는 말은 삼갔다.

사형반대쪽이 우세한 것이 조금 놀라웠다.

사형반대쪽 대부분은 정서적으로는 사형을 지지하고 싶으나 그것이 복수 효과만 있을 뿐 그밖의 의미는 없어보인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로 사형찬성 쪽은 모두가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만 성이 풀린다며 복수 차원의 사형을 내세웠다.

요즘 청소년들이 비디오나 휴대전화, 컴퓨터에 젓



어 살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것 같아도 예민한 현실 사안에 대해 토론을 붙이면 뜻밖에 논리적이고 이성을 토대로 주장하는데 가끔 놀라게 된다.

그들도 나름대로 말도 안되는 온갖 교육현실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제각기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일까.

모순적인 교육문제들에 대해 이런 문제가 몇 년이나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으면 꽤 상당수(절반 이상)가 절망적으로 본다 고 답하기도 해서 놀라게 된다.

현실 문제에 이성적으로 답하면서도 절망도 하는 것이 젊은이의 특성일까. 그들의 이상과 이성이 옳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정인섭 (안드레아) · 그림 : 황익성 (세레자 요한)

### ▶ 짧은 묵상 긴 여운 ◀

#### 5월은 가정의 달-사랑에 관한 10가지 명상

사랑을 얻으려고 흥정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거든 그를 사랑하라  
 사랑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결점을 극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라  
 자신이 부린 씨는 자신이 거두는 법,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한눈팔며 비교하지 말고 앞을 보라  
 가까울수록 예절을 지키라  
 원망이나 저주는 금물  
 닦을수록 윤이 나는 것  
 문제는 살아 있다는 증거, 문제를 두려워 말라.

'예수는 어떤 가정을 바라는가' 중에서



이창림 작 '성가족상'

# 하느님의 작은 도구



보자기를 두르고, 목에는 휴지를  
접어 끼우고 신부님 흉

내를 내던 다섯 살짜리 꼬

마가 정식으로 사제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있다. 그때는 제의를 입으신 신부님의 모습이 멋져보여서 '키서 신부님이 되겠다.'고 했지만 성장하면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정환경 덕분에 있었겠지만) 가톨릭교회가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사제가 되어 하느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매 순간이, 심지어 내가 하느님께 향한 길을 제대로 걷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이끌

어주시는 주님의 섭리 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일 년 조금 넘게 신학교에 살면서 '진리를 가진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교회, 당당하게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외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 신학교의 교시(校是)는 '진리에 봉사'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진리를 위해 한 목숨 바쳐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첫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이었다. 하느님 뜻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종종 작년 입학식 때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보며 각오를 새롭게 하곤 한다.

'사제성소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사제서품을 받을 때이다.' 라고 어느 원로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은

멀리 보이지만 주님께 의지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작고 약한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드러질 영광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성장하는 신학생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은인들과 가족들의 기도, 서로 일으켜주고 붙잡아주며 함께 걷는 동기들과 선배들 없이는 힘들고 고되기만 한 길일 것이다. 기쁘게 지난 일 년을 지낸 것도 이런 분들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박민호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부2년 · 펠릭스>



## 2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대학생 : 6/25~8/13(7주) 592만원  
초·중생 : 7/25~8/15(3주) 399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 참 편한 통증의학과

백승(시문) / 조경아(베로니카)  
상담 : 246-8377  
위치 : 인후동 안골사거리  
국민은행 옆 KTF 2층

고급 생선(도매, 소매)

## 100번 수산

이북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

##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1층 : 남성 크로커다일,  
여성 프레드릭가스페  
2층 : 초대형 BYC 상설마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85-2  
(GS마트 맞은편)  
전 북 순(아가다)  
☎ 277-0085

## 엄마오하우스 펜션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도 관광하시는 신저여러분의 여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차량 및 호텔, 펜션, 민박)  
문의 :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 좌순옥(가밀라)/고세영(영주 바오로)

중국과 인도 펀드에 투자하는

## 미래에셋친디아변액보험

변효석(루도비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은  
SAVE 연금보험 판매개시!!  
문의 : 010-6797-8291

## 르노삼성자동차

New SM5-SM3-SM7

중고차 처리부터 자동차 관리  
폐차까지 결과 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 222-2282, 011-9439-0112  
홍과장(베드로)

# 기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 '제진이는 신부님이 되면 좋겠네' 하며 어느 신자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집과 성당까지 조금 먼 거리였기에 저는 미사 복사를 서는 것도 못하고, 그저 주일 미사만 참여할 뿐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제가 신부님이 된다면...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신부님이 된다는 것,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기술을 배워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실업계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때에 저에게도 '부르심' 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항상 부르시지만 본당 선배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본당 선배들을 따라 전주에 갔습니다. 좋아하던 형들이라 그저 나선 길이었었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예비 신학생' 모임이었습니다.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있는, 그것도 남학생들만 있는 그 모임이 웬지 모르게 편하고, 제가 살 곳은 '바로 여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 이 무엇을 선택한다기보다 벌써 하느님께서 '나' 를 찍으신 것은 아닌가?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성공과 실패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분의 부르심을 여러 핑계(?)를 대고 회피함으로써 엄청나게 멋진 미래를 없애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참되게 사는 길을 한 번에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주님께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것처럼 멋진 길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정세진<광주가톨릭대학교 부제반 · 토마스>

초등학생 시절, 여느때처럼 복사옷을 입고 제의실에서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들어오신 신부님은 십자가 앞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신 후 제의를 입기 시작하셨다. 장백의를 입고, 띠를 띠고 영대를 걸치고 제의를 입고... 복사를 할 때마다 늘 보던 광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제의를 입고 내 앞에서 서 계신 신부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사제가 되어 저 멋있는 옷을 기필코(?) 입으리라.

중·고등학생 시절, 내가 가장 동경하는 대상은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다. 순식간에 대중을 압도하면서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카리스마,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느낄만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보다는 만화책과 소설책을 성가보다는 서태지의 노래를 좋아하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우연히 복음서를 읽게 되었다. 지은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죽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도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였다. 그래서 또 결심했다. 사제가 되리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리라.

신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이제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나를 부르신다. 세상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자신의 생애를 나보고도 살라신다. 항상 손해보고 살 게 분명한데도 아주 기쁘게 "예!"라고 대답해 버렸다. 지금도 후회는 없다. 난 그분처럼 되고 싶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한 모든 것인, 아주 어리석지만 그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사제이다.

이상욱<광주가톨릭대학교 연구년 · 안드레아>

## 알즈너 (성모대리점)

www.alzner.co.kr

발목, 발, 무릎, 척추골반, 목, 허리  
발 교정구 (1:1 맞춤형)  
독일 정형외과 의사 개발  
통증해소에 큰 도움(미국 특허 인가상품)  
문의 : 232-2090 / 대표 : 김순희(루시아)  
위치 : 전주 평화동 성당 근처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 지애대우 전주정비센터

보중수리 및 일반수리,  
24시간 무상 긴급출동  
타사차량 환영(교우차량 10% D/C)  
강공섭(아도) 박미원(요안나)  
예수병인 행복한 세상 맞으면  
문의 : 284-8255, 011-673-6656

##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 <익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산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 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

## 익산 효성고등학교

2006학년도 신입생모집 /  
인문계 남 · 여공학 180명  
원서접수 : 원서접수순 마감  
입학상담 : 063-858-9831~3  
전영길 · 박경례(소화대레사)

## 교통 사고 보상 상담

손해사정인

황 선 주 (프란치스코)  
☎(063)236-1040  
H · P 011-659-4985

## 전·진·상 영성 사목센터 김마 영성 트레이너 기본 과정

: 총체적인 단체운영 관리법과 리더십 훈련  
일시 : 5월 25일~25일(2박 3일 과정)  
문의 : 02-726-0710  
http://www.ijjcon.or.kr



교구장 일정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5월 8일(월) 오후 2시 30분
- **사목 방문**  
5월 8일(월) 금마 · 부송동
- **재무평의회**  
5월 10일(수) 오전 10시
- **사제평의회**  
5월 10일(수) 오후 2시
- **치명자산 성지개발 회의**  
5월 10일(수) 오후 4시
- **교구사제 월례목상회**  
5월 11일(목) 오전 10시 나바위
- **사목방문**  
5월 12일(금) 주현동 · 영등소라
- **교구법원 관계자 모임**  
5월 13일(토) 오전 11시
- **여성 91차 꾸르실로 미사**  
5월 14일(주일) 친호
- **견진**  
5월 14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진안

- **교구법원 관계자 모임**  
5월 13일(토) 오전 11시 센터
- **컵스카우트 미사**  
5월 14일(주일) 오전 8시 송광사
- **가톨릭 문우회 행사**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어울마당)  
5월 14일(주일) 오후 3시 30분 민촌아트홀  
회비 : 2만원
- **서전주하나회 미사**  
5월 14일(주일) 오후 2시 삼천동
- **이주사목 미사**  
첫째주일, 셋째 주일 오후 2시  
익산 창인동 성당내 성 요셉 노동자의 집  
둘째주일, 넷째 주일 오후 2시  
전주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  
매주일 오후 1시 30분 군산 소룡동 성당  
넷째주일 오후 2시 장수 성당  
문의 : 852-6949

- **제2기 신앙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실시안내**  
일시 : 5월 12일~6월 2일 센터 3층  
접수 및 문의 : 사목국  
본인 직접 방문 지원서 작성 제출  
<http://www.jjsamok.com>  
<http://www.jcatholic.or.kr> 참조
- **EM(Effective Micro-organisms)교육안내**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식종을 배양, 환경 정화에 활용할 수 있는 EM교육과 상담. EM은 각종 질병과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고 유해한 균을 억제시켜 줍니다.  
교육 및 상담 안내 : [www.gs1004.or.kr](http://www.gs1004.or.kr)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 466-788-2 단체 교육 신청시 출장 교육 실시

기타

- **전동성당 사목회**  
전동성당 보수복원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보노인종합복지관 개관 7주년 작품전시 및 나눔 잔치(음식바자회)**  
5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감사미사 : 오전 10시 30분 이병호 주교  
장소 : 인보노인종합복지관
- **전주카리타스 봉사단원 모집**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히 투입되어 빠른 복구와 이재민을 긴급 구호하는 봉사단체)  
모집기간 : 5월 1일(월)~15일(월)  
대상 :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건강하고 사망망있는 자,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양성교육 : 5월 21일(주일), 28일(주일) 오후 2시  
발대식 : 5월 21일(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전주가톨릭신학원 대강의실  
문의 : 284-5290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5월 8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끈비벤자**  
5월 8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5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2차 2일**  
5월 9일(화) 오전 10시 센터
- **치명자산 성당 봉헌 기념일 미사**  
5월 9일(화) 오전 10시
- **재무평의회**  
5월 10일(수) 오전 10시 교구청
- **사제평의회**  
5월 10일(수) 오후 2시
- **교구사제 월례목상회**  
5월 11일(목) 오전 10시 나바위
- **여성 91차 꾸르실로**  
5월 11일(목)~14일(주일) 친호

교육 · 피정 · 연수

- **묵상 관상 기도 피정(전주)**  
5월 11일(목) 오후 2시 복자/ 방의성 신부
- **중고 교리교사 여름연수**  
5월 13일(토)~14일(주일) 해월리
- **신앙문화유산해설사 제2기 양성교육**  
5월 12일(금) 오후 7시 센터  
5월 13일(토) 오전 9시 30분 센터

**좋은 영화 올랜드 오퍼스**

5월

일시 : 5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 센터 3층  
상영시간 : 143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  
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의 진  
정한 의미를 묻는 가족 · 캠  
퍼스 영화.

저소득층 가정 1:1 결연 후원  
후원계좌번호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전북은행 541-13-0311676  
문의 : 232-0334, 286-0334

**착한목자 수녀회**  
**착한목자 관상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5월 14일 오후 2시~5시  
장소 : 조촌동 천주교회  
문의 : 019-299-0533  
비고 : 착한목자관상 성소모임도 함께 합니다.

**제주 성이시들 피정**  
(미사, 말씀, 자연피정, 종교해성사)  
장소 : 제주 성이시들목장내  
일시 : 6월 14일~17일, 7월 15일~17일,  
7월 20일~23일  
신청 : 02-773-1455 성이시들 피정센터  
지도신부 : 임피제 파트리치오 신부

**2006년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 5월 20일(토) 오후 4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 예수회 본부(사당대 K관 뒤)  
주제 : 질그릇에 담긴 보물  
문의 : 02-719-1803, 011-9728-1803  
대상 : 대제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 (suscipe) 기도모임**  
일시 : 매월 둘째 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익산 성모병원 내 수녀원  
대상 : 떼제 노래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미혼 남녀  
문의 : 예수수도회 011-420-0268

**작은예수수녀회 성소모임**  
주제 :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  
일시 : 2006년 5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수녀회본원  
문의 : 02-462-7970, 011-9939-7970

#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 고 창

주임번호 : 563-2552 사무실 : 564-2044 주임번호 : 김 의 철  
 유지월 : 564-3529 수녀원 : 564-6585 사목회장 : 이면우  
 F A X : 563-1782

- ◎ 오늘은 성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신입 : 이명우, 조미숙, 김영희 각 100만원, 영광희 50만원, 이갑성 이현순 각 20만원, 봉필광 이원희 이덕희 각 10만원, 홍점례 2만원  
 총신입액 - 4,328만원, 총납입액 - 3,307만원  
 2. 예비신자 인도에 적극 동참합니다. : 환영식 5월 30일  
 ※ 예비신자 카드를 제대 앞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3. 호도관광 : 9일(화) 전8시출발 - 대상 65세이상  
 4. 사목회의 : 10일(수) 후7시30분  
 5. 금주모임 : 아브라함회, 제대회 - 공식미사후, 반석회 - 12일(금) 후7시  
 6. 다음주모임 : 성모회 - 공식미사후  
 7. 다음주전례 : 전례-정기백, 강의역, 독서-김점동, 신명숙, 복사-손영찬, 송덕현  
 ■ 지난주 봉헌금 : 1,061,800원 ■ 교무금 : 1,439,000원

## 부 안

주임번호 : 584-1331 사무실 : 584-1333 주임번호 : 문 규 면  
 유지월 : 584-1004 수녀원 : 584-1332 사목회장 : 조 건 규  
 F A X : 581-1334

1. 사목회 : 9일(화)후8시  
 2. 구역반장회의 : 10일(수)전11시  
 3. 신축헌금신립 : 익명(100만), 오일봉, 박영순, 조인순(각5만), 방계유(7만)  
 신립누계 : 202,808,000원 입금누계 : 86,363,270원  
 4. 금주청소 : 1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296,000원 ■ 교무금 : 1,775,000원

## 시기동

주임번호 : 538-0092 사무실 : 538-0091 주임번호 : 경 규 봉  
 유지월 : 532-5777 수녀원 : 538-0093 사목회장 : 최 월 관  
 F A X : 538-0094 홈페이지 : http://www.sigdong.or.kr

- ◎ 금주는 '성소주일 2차헌금 실시합니다. ◎ 가톨릭센터 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 5월중 미사는 나 양식으로 봉헌합니다. 1. 성모의 밤 행사 : 5월 12일(금), 개인 및 단체 교우 여러분들의 꽃 봉헌 부탁드립니다.(사무실 접수)  
 2. 본당 전신자 및 레지오 단원 교육 안내 일시 - 5월 18일(목)~19일(금), 19시~21시 30분 강사 - 김재중(요셉 푸른구대 회장님)  
 3. 호스피스 교육 안내 : 기간 - 6월 19일 ~ 7월 19일(매주 월, 수요일) 시간 - 19시 ~ 21시(대성당), 교육비 - 본당 신자 15,000원(사무실 접수)  
 4. 금주모임 : 성모회, 구 반장회(5/7 주일 교육미사 후), 청년회(5/12 금 19시) 돈보스코회(5/13 토 18시 사무실 방), 금주전례 : 해설 - 전강철, 독서 - 이영삼, 신명자 6, 성모청소 : 화(5/16) - 지혜로운 청년, 토(5/13) - 정의의 거울 7, 2차헌금 : 박형순(미카엘라) 5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269,100원 ■ 교무금 : 1,491,000원  
 ■ 가톨릭센터신축기금 : 지난주 1,049,000원

## 연지동

주임번호 : 538-0532 사무실 : 538-0531 주임번호 : 박 정 신  
 유지월 : 538-0534 수녀원 : 538-0533 사목회장 : 김 인 권

- ◎ 오늘은 성소주일로 2차 헌금 있습니다.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1. 이번주 성서 : 창세기 1장  
 2. 금주모임 : ① 아브라함회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여성부과회 - 12일(금) 미사 후  
 3. 경로관광 : 8일(월) 다산초당, 낙안읍성, 체육관 앞08시 정각 출발  
 4. 예비신자 입교식 : 5월 14일(수)일  
 5. 첫영성체 교리반 모집 : ① 대 상 - 3학년~6학년 ② 접수-사무실  
 6. 출 일 훈배 : ① 13일(토) 후1시, 신랑-강성호(야마오), 신부-이명순(울리아) ② 14일(주일) 낮2시, 신랑-이철권(마태오), 신부-김정옥  
 7. 감사헌금 : 이한욱(베드로)100,000원 감사합니다.  
 8. 차주모임 : 성심회, 자모회

## 요 촌

주임번호 : 544-0152 사무실 : 544-0151 주임번호 : 박 중 신  
 유지월 : 546-3788 수녀원 : 544-0153 사목회장 : 구 지 옥  
 본당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achon.org

- ◎ 우리본당은 ①공부하는 신자 ②감사하는 교우 ③기뻐하는 공동체  
 1. 첫 영성체자 교리 : 9일(화)부터(매주 화, 수, 목, 금)-후3시30분  
 2. 성소주일 2차 헌금 : 오늘  
 3. 초등부 성지 순례 : 13일 (토) 오전 9시 출발 - 해미성지  
 4. 한마음 효도잔치 : 14일(일)  
 5. 센터 신축헌금 신입 : 제대회, 안나회-각50만, 고순길-48만, 이정기-30만, 서규성-20만, 계 1,688만원  
 6. 감사 : 김택문-5만, 연희동 심신자-각3만, 임명-30만, 익명-진공 청소기  
 7. 금주모임 : ①요셉회, 연합구역-교중미사후 ② 숲정이화 - 10일(수) ③구역반장회-12일(금)④자모회-13일(토)  
 ■ 지난주 봉헌금 : 1,608,100원 ■ 교무금 : 1,562,000원  
 ■ 센터 2차헌금 : 490,600원

## 줄 포

주임번호 : 581-0242 사무실 : 581-0241 주임번호 : 송 영 진  
 F A X : 581-0241 사목회장 : 박 경 우

1. 자원봉사자 모집 : 부안 효병원 원목실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수녀님께 신청바랍니다.  
 2. 5월 차동사자 : 허인순, 이순옥, 문양례  
 3.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후  
 4. 성서묵상 기도회 : 10일(수) 저녁미사후  
 5. 성모회 : 14일(일) 공식미사후

## 만 경

주임번호 : 548-9995 사무실 : 548-9911 주임번호 : 정 석 수  
 F A X : 548-9911 사목회장 : 최 봉 순

- ◎ "희망의 하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로마 15,13)  
 1. 금주 ① 성전건축 2차헌금 ② 성모회, 성심회, 자모회, 요셉회, 차랑은영위 ③ 주일학생미사 ④ 구역장회, 사목회 ⑤ 금요순회미사 - 남포, 최영림(요셉)형제님 덕  
 2. 차주 ① 광활 75주년 감사미사와 친교행사 ② 율프레야 - 저녁  
 3. 특별헌금 : 익명 7만 2천 ※ 감사합니다.  
 4. 금주 : 해설 - 김정숙, 독서 - 최영림, 백금순  
 5. 차주 : 해설 - 공순례, 독서 - 전광명, 박안나

## 수 류

주임번호 : 544-5653 사무실 : 544-5652 주임번호 : 변 봉 백  
 F A X : 544-5652 사목회장 : 은 영 일

1. 오늘 모임 : 성모회 - 공식미사후  
 2. 다음주일 모임 : 율프레야 - 공식미사후.  
 3. 구장공소 미사 : 5월 7일 (주일) 오후 3시  
 4. 오늘 성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5. 감사헌금 : 최춘기(마태오) 100만원 \* 감사합니다  
 6. 사목회 : 12일(금) 오후 8시 30분  
 7. 오늘 : 해설 - 정준환, 독서 - 강경복, 진정자, 봉헌 - 김기수부부  
 8. 다음주일 : 해설 - 박영덕, 독서 - 최상열, 김정애, 봉헌 - 김길영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95,100원 ■ 교무금 : 350,000원

## 신 태 인

주임번호 : 571-8202 사무실 : 571-8201 주임번호 : 김 봉 술  
 F A X : 571-8206 수녀원 : 571-8203 사목회장 : 박 찬 수

- ◎ 오늘은 부활 제 4주일 성소주일입니다. - 2차 헌금 있음  
 ※ 신부님, 수녀님, 신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랍니다.  
 ◎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 미사전에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1. 성모의 밤 미사 및 행사 : 11일(목) 후8시, 봉헌 예뵐 있습니다.  
 2. 구역 미사 : 5구역(요천, 태화) - 10일(수) 후7시30분  
 3. 부활 제 5주일(5월14일) : 가족에게 편지 쓰기 주일  
 ※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 인사하기  
 4. 가정애 성경구절 가훈을 정해서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5. 감사 : 성전보수 헌금 - 최석원(중앙) 50만원  
 ■ 지난주 봉헌금 : 973,550원 ■ 교무금 : 1,310,000원

## 신 풍

주임번호 : 544-2272 사무실 : 544-2271 주임번호 : 이 동  
 F A X : 544-2281 수녀원 : 544-2273 사목회장 : 김 태 술

- ◎ 오늘은 성소주일로 2차헌금 있습니다.  
 ◎ 사순절 패지는 살찌워서 오늘부터 봉헌해주세요.  
 1. 금주모임 : 성모회, 대진회, 화사회, 사목회(토)  
 2. 차주모임 : 율프레야는 성지순례 관계로 다음주로 연기  
 3. 공식미사 : 용지(8시), 와룡(후3시) 백자-21일(전8시)  
 4. 뽕뽕미사 참여공소 : 신앙  
 5. 성지순례 : 5월 14일 : 배터성지, 9시 우리마트앞 출발  
 공식차량은 애틀리 겸승님 앞 징검  
 6. 성모의 밤 : 25일(목) 저녁 미사후  
 7. 첫영성체 교리 : 9일부터(화, 수, 목, 금) 7일까지 접수마감.  
 교리시간 - 후4시30분-6시  
 ■ 지난주 봉헌금 : 1,013,900원 ■ 교무금 : 920,000원

## 원 평

주임번호 : 543-0880 사무실 : 543-0881 주임번호 : 정 영 현  
 유지월 : 543-4236 수녀원 : 545-2843 사목회장 : 최 석 기

1. 금주모임 : 꾸리아(주일미사 후) 2. 차주 : 성모회, 대진 안드레아회  
 3. 5월 2일(화)부터 첫영성체 교리가 시작됩니다. 해당부모님들과 모든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5월 2일부터 평일저녁미사(화, 목)가 19시 30분으로 저녁미사(금)가 아침 9시로 변경됩니다.  
 5. 성모성월을 맞아 평일미사 후(화, 수, 목, 금)에 성모상 앞에서 로사리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6. 승합차구입 헌금 : 이옥순 5만원, 김금태 3만원, 정영기 3만원, 김단오 2만원, 김남기 10만원, 김순이 2만원  
 7. 승합차은행 봉사자 : 금주 - 이화준(발렌티노), 차주 - 김용태(안토니오)  
 8. 금주전례 : 해설 - 강단규, 독서 - 조재현, 송영순, 봉헌 - 신재수 가정  
 9. 차주전례 : 해설 - 유용선, 독서 - 김중운, 강성열, 봉헌 - 이금태 가정  
 10. 성당청소 : 금주, 봉헌구영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15,300원 ■ 교무금 : 300,000원

6. 만석공소미사 : 14일(일) 오후 3시  
 7. 미사안내 : 금주 - 최준석, 송윤정, 차주 - 박수자, 김중선  
 8. 금주전례 : 해설 - 최준석, 독서 - 임순선, 이정숙, 봉헌 - 윤봉현 부부  
 9. 차주전례 : 해설 - 고재일, 독서 - 김정중, 박수자, 봉헌 - 김민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03,000원 ■ 교무금 : 460,000원



### 어양동 성당 축성식



어양동 성당(주임=김창신 신부) 새 성전 축성식이 지난 4월 29일(토) 오전 10시 익산시 어양동 158-4 현지에서 이병호 주교 집전으로 거행했다.

1부 축성 예식을 마치고 이어진 2부 축하 예식,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식, 꽃다발 증정 및 감사 인사, 축가, 강

복으로 마친 후 3부 행사인 나눔의 잔치로 이루어 졌다.

지난 2004년 10월 착공 1년 6개월여 만에 완공된 새 성당은 대지 800여 평에 연면적 510여 평으로 소성당 겸 강당, 대성당 등으로 구성된 성당건물과 사무실, 사제관, 성체 조배실 등으로 구성된 3층의 부속건물 두 동이 연결되어 있다.

지난 2004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4월 28일까지 500일간 16개 전구역이 순서대로 매일 오후 8시에 성당에 모여 1시간씩 기도하고 성당 조감도를 1/500로 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축성식 전날인 4월 28일에 마지막 500번째인 한 장의 스티커를 붙여 완성한 구역 기도 봉헌을 주교께 봉헌하였다.

580여 세대에 신자 수 1500여 명인 본당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바자회를 개최하고 서울 등 타 지역 본당으로 썩떡을 팔러 다니는 등 건축비 모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영수 기자

### 서신동 성당 어린이 해바라기 장터 개장



서신동 성당(주임=전대복 신부)은 지난 4월 29일(토) 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바라기장터' 를 열었다. 초등부 어린이 100여명이 참여하여 열린 이 행사는 오후 1시 30분 어린이 미사에 이어 경매, 예수님 모자이크 맞추기, 볼링 하기 등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서장경 기자

### 나운 2동 성당 성경 암송대회

나운 2동 성당(주임=이영우 신부)은 지난 4월 30일(주일) 교중 미사후에 성경암송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맛들이고 항상 기억함으로써 실제 삶 속에서 생활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최우수상은 이동필 형제가 수상하였고, 상품으로 주교님 친필 서명과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성경이 주어졌다. |오안라 기자

### 박인호(베드로) 신부 은경축 기념행사



교구 박인호 베드로 신부(평화동 성당 주임)의 사제서품 25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4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평화동성당 교중미사중에 있었다.

사제와 내빈 그리고 신자 650여명이 성당 좌석을 꽉 메운 가운데 열린 이행사는 제1부 기념미사, 제2부 축하식, 제3부 축하연 순으로 이어졌다. |서장경 기자

### 전주 가톨릭 신학원 졸업생 재교육

전주 가톨릭 신학원(원장=김선태 신부)은 4월 29일 졸업생들의 영적 생활 향상을 위한 연례 재교육을 신학원 강당에서 가졌다. 150여명의 졸업생 및 재학생 다수가 참여한 이날 교육은 가톨릭대 교수인 김혜운 수녀가 '묵시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묵시문학에 관한 책 '봉인된 시선을 넘어서' 의 저자이기도 한 김수녀는 이 책을 교재로 종말 신앙에 대한 신자들의 궁금증과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제시해 주었다. |신현숙 기자